

# 포항 제조업 3분기 경기 '먹구름'... 철강 부진에 투자 위축

포항상의 조사, 제조업 BSI 64로 ↓ 전분기비 11p 낮아 악화 전망 확대  
철강업 BSI 62, 관세·내수부진 직격  
중동 불안에 원가·물류비 상승 압박  
기업 94%, 사업확대·투자계획 없어



포항상공회의소 전경.

포항지역 제조업체들의 올해 3분기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4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전망치 75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응답 기업의 47.2%는 3분기 경기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44.5%는 악화, 8.3%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경기 악화를 전망한 기업 비중은 34.9%에서

44.5%로 늘어난 반면, 호전과 보합 전망은 모두 감소했다.

항목별 BSI는 설비투자 83, 매출액 66, 전반적 체감경기 64, 자금사정 63, 영업이익 57로 모두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철강업 BSI가 62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하락했다. 포항상공회

의소는 내수부진과 대미 철강관세 부담에 더해 EU의 철강수입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확대 추진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부담이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업은 BSI 70, 기타 제조업은 67로 조사됐다. 화학업은 중동 정세에 따른 원유·나프타 가격 변동성 확대가, 기타 제조업은 철강업 부진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에 따른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은 56.9%가 변동이 없다고 답했고 43.1%는 변동이 있다고 응답했다. 계획변경 내용으로는 가격·납품단가 인상(22.3%)이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재고 확대·선매입(18.5%), 운영비용 절감과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각 12.3%) 등이 뒤를 이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지역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61.5%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대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역 내수·소비 회복 지연(28.7%), 비용·자금 부담(22.8%), 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15.8%) 등이 꼽혔다. 반면 기대 이유로는 지자체 재정·금융 지원 확대(43.7%),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34.4%),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21.9%)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지역 내 사업 확대나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94.4%가 현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지역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재정 지원 강화와 산업안전 지원체계 구축,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경주시 복합문화공간 라원 공식 개장

경주시는 복합문화공간 라원의 공식 개장 기념식을 29일 열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 4월 개장한 라원은 운영 안정화와 관광업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의회와 유관기관,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관광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방풍림 조성 기념식수도 함께 이뤄졌다. 라원은 약 5만㎡ 부지에 실내 디지털 전시관 2동과 화랑, 야외정원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 영양군

#### 자작나무숲 사계절 사진 공모

영양군은 대표 산림 관광자원인 자작나무숲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2026 영양 자작나무숲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작나무숲의 사계절 풍경을 기록하고 우수 작품을 관광 홍보 콘텐츠로 활용해 지역의 매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콘테스트는 '2026 영양 자작나무숲: THE ARCHIVE'를 주제로 '영양의 숨겨진 보물, 자작나무숲을 기록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영양군은 자작나무숲의 자연경관과 지역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발굴해 관광 홍보와 지역 브랜드에 활용할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887@

### 기장군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기장군이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청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8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지방세의 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실태를 조사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서울시도 292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모집하는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 국립창원대학교

#### KERI와 방산·원전 인재양성

국립창원대학교가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손잡고 방산·원전·스마트 제조 분야 교육·연구 협력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양 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동 연구 개발(R&D) 추진 방향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해 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학교와 통합하고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연합하는 한편,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 김해, 한옥체험관 18억 들여 새단장

### 13개 객실 리모델링 후 재개관 아트숍·회의실·조식공간 조성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한옥체험관이 오는 7월 1일 재개관한다. 김해시는 노후 시설을 손보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해한옥체험관은 가이문화유적복원사업의 하나로 2006년 9월 문을 열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상징인 99칸 가옥을 재현하려 했으나, 사정상 사당채와 안채, 별채, 아래채, 바깥채, 행랑채, 사당 등 85칸 7동 규모로 지어졌다.

체험관은 13개 객실을 갖춘 전통 한옥 숙박시설로, 재개관 전까지 매해 7000명이 넘는 숙박객이 찾아왔다. 김해시가 건립하고 김해문화관광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김해한옥체험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예산은 균특전환·도비와 시비를 합쳐

총 18억원이 투입됐고, 3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됐다. 13개 숙박 객실 전체를 리모델링했으며 숙박동 외 공간에는 ▲아트숍 기쁨 ▲회의실 2곳 ▲조식공간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새로 마련했다.

김해한옥체험관의 변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9월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과 SBS가 협업해 체험관 내에 카페와 서점, 굿즈숍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명월'을 열었다. '명월'은 개장 이후 연간 6만여 명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체험관은 부산김해경전철 수로왕릉역에서 도보권에 있고, 주변에 수로왕릉과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군 등 가야 관련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2020년에는 경상남도 '체류형 힐링 숙박 여행지 30선'에 뽑히기도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노후 시설 개선과 관광객 편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MICE 관광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와 관련해 공동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경북, 호남권 반도체 팹 지정 반발

### TK 의원들과 국회서 긴급 회견 입지 기준·평가 결과 공개 요구

경북도와 대구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와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 정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반도체 전공정 팹 입지는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하며, 입지 선정 기준과 과정,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 '첨단산업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 따라 광주·전남 후공정 팹 조성은 존중하지만 전공정 팹까지 지정할 것은 전력·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 물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이 들어설 경우 대구·경북 반도체 협력기업들의 연쇄 이전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경북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 470여 개와 소부장 전문기업 1,700여 개가 집적돼 있으며, 반도체 특화단지인 전문 인력,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경남, 국내 첫 양방향 수소에너지 실증

### 하이브리드 수소특구 신규 지정

경남도가 국내 최초로 수전해와 연료전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한 양방향 수소 에너지 실증이 나선다.

경남도는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17~19일 열린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전해 설비와 수소연료전지를 통합한 제품에 대한 시설·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소 생산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수소용품 제조·검사 특례가 부여되면서 상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특구의 핵심 기술인 rSOC는 잉여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필요시 저장된 수소를 다시 전력으로 전환하는 양방향 운전 방식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활용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실증사업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함안군에서 진행된다. 에이치엔파워, 범한퓨얼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약 203억원 규모다. 수소 생산·저장·발전 통합 운영하며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뒤, 관련 법령 개선과 안전 기준 마련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부산, 국제회의 개최 실적 역대 최고 순위

### UIA 세계 22위·아시아 7위 기록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이 국제협회연합(UIA)이 집계한 2025년 국제회의 개최 실적에서 세계 22위, 아시아 7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컨벤션협회(ICCA) 평가에서도 세계 49위, 아시아 12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UIA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협회 네트워크 기관으로, 전 세계 비정부기구(NGO)와 정부 간 기관 관련 국제회의의 통계를 집계한다. ICCA는 컨벤션 분야의 국제 통계 기준을 관장하는 기구다. 두 기관 모두 MICE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으로 꼽힌다.

이번 UIA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445개 도시에서 총 9281건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한국은 이 가운데 491건을 개최해 국가별 순위 세계 2위에 올랐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도

2024년 3.87%에서 5.29%로 상승했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216건으로 아시아 1위를 차지했고, 부산이 세계 22위, 인선이 42위로 뒤를 이었다.

부산시는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벡스코(BEXCO)의 컨벤션 시설과 주변 숙박·쇼핑·문화 인프라 간의 연계를 꼽았다. 지역 MICE 업계 협회체인 '부산마이스 얼라이언스(Busan MICE Alliance)'의 행사 지원과 민관 협력도 유치 경쟁력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시와 공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정부 간 회의와 대형 국제학술대회 유치에 집중하고, 지역 업계와 연계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윤빈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시와 공사, 벡스코, 지역 업계가 함께 유치 마케팅을 전개해 거둔 성과"라며 "유치 전략을 고도화해 부산 MICE 산업의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